사춘기 청소년 위한 스님의 성교육

日 쥰야 스님, 연간 30개 학교 돌며 교육 호평

박영빈 객원기자

불교를 비롯해 모든 종교에서 성적인 주제는 공개적으로 말하기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일본에서 가사와 장삼을 수하고 학생들에게 직접 성교육에 나선 스님이 있어 화제다. 11월 8일 일본의 '니시니혼신문'은 사춘기의 중·고등학생들과 성교육을 중심으로 소통하는 스님에 대해 특별 보도했다.

2011년부터 사가현에서 성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후루카와 쥰야 스님(46). 스님은 사가현 교육청으로부터 직접 학생들의 성교육을 위탁 받아 현 내에 소재한 연간 30여 곳의 중·고등학교를 돌며 강의한다. 스님은 정토진종(淨土眞宗) 사찰인 죠세이지(淨誓寺)의 부주지이기도 하다.

모든 수업에 가사와 장삼을 갖추고, 손에는 염주를 꼭 쥐고 수업에 나선다는 스님은 "학생들에게 수업 전마다 '저는 스님입니다. 교과서 같은 정답을 가르치는 게 아닌, 여러분의 친구로서 이야기하겠습니다'라고 말한다"고 밝혔다. 스님이 항상 교육하는 주제는 '성과 삶과 죽음'이다. 스님은 "성교육은 단순히 성관계와 임신, 출산만을 가르치는 게 아니다"고 역설했다.

스님이 성교육에 나서게 된 것은 우연한 계기였다. 종립대학을 졸업하고 사찰로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된 호스피스병동 방문이 그 시작이다. 스님은 "암이나 에이즈 환자들과 만난 뒤 각 질병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알기 위해 정보를 취합하고 있었다. 그러다 에이즈 예방을 위한 강연회나 스터디모임에 젊은이가 적다는 것을 게 됐다"고 말했다.

성병예방 활동 계속 이어오다
젊은이들 잘못된 성지식 인지
성교육 넘어 삶과 죽음 강의
교육계 호평… 교육의뢰 꾸준

쥰야 스님은 또 관련활동의 일환으로 에이즈와 성병예방을 위한 행사에 참가해 승복을 입고 대중의 성상담을 받으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잘못된 성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에 놀랐다.

스님은 "스님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특히 사산이나 중절한 아이에 대해 고민하는 여성들의 상담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쥰야 스님은 이러한 체험 끝에 직접 성교육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연간 30개 중·고등학교에서 성교육을 진행하는 쥰야 스님. 사진출처=니시니혼신문

그러나 기존의 성교육 프로그램과 내용은 단편적인 성지식에 대한 내용뿐이었다. 종교인으로서 일반교사나 보건의료관계자의 이야기만을 전하기에는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을 하기 어려웠다. 또 다른 성에 대한 생각을 학생들에게 알아주길 바란 스님은 "성교육과 함께 삶과 죽음에 대한 고찰도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스님은 "성교육은 기본적으로 자신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다. 그렇다면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이 빠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생사관과 성에 관련된 연결점에 대해 스님은 "삶과 죽음을 모두 더해야 생명이 완성된다. 죽음이라는 종점이 없다면 지금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개념이 생기지 않는다. 이러한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 바로 성"이라고 덧붙였다.

스님의 이러한 성교육은 학생들에게도 호평을 받고 있다. 올바른 성지식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자존감을 향상한다는 평가다. 최근에는 사가현 외에 다른 현의 고등학교에서도 개별적으로 교육의뢰가 들어오고 있다는 후문이다. 쥰야 스님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생명을 존중하게 되고, 이어서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자신에 대한 존중감이 생긴다"고 거듭해서 강조했다.

"불교 위기 극복한 찬불가 포교"

일본 자매관계인 두 스님
학창시절 음악활동 살려
알기 쉬운 불교정신 확산

음악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스님들이 있다. 심지어 자매관계인 두 스님이 직접 연주와 노래를 해 대중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 독특한 소식을 11월 4일 일본의 '츄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이시카와현에 소재한 사찰 사이쇼지(西照寺). 이곳에서 포교활동을 하는 히노 스나오 스님과 히노 후미 스님은 실제 자매 사이다. 두 스님은 학창시절 각각 피아노와 밴드활동을 하면서 음악과 인연을 맺었다. 친가이기도 한 사이쇼지에서는 2013년부터 매년 여름 라이브 이벤트를 여는 등 음악활동을 활발히 이어왔다.

후미 스님은 "불자들의 사찰 이탈이나 불교와 멀어지는 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에 걱정이 많았다. 불교에 대한 흥미를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끝에 음악이 떠올랐다"며 음악활동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당에서 설법 라이브를 진행 중인 스나오 스님(사진 왼쪽)과 후미 스님(사진 오른쪽). 사진출처=츄니치신문

사찰에서 진행하는 라이브 이벤트나 음악회가 호응을 얻자, 두 스님은 불교의 가르침을 노래하기로 결심했다. 실제 일본불교에서 현대적인 찬불가는 약 200년 전부터 작사·작곡된 역사가 있다. 또 두 스님과 같이 노래나 음악으로 포교에 나서는 스님들도 적지 않다.

3년 전부터 시작된 '설법 라이브'는 스나오 스님의 피아노 반주와 후미 스님의 노래로 불교의 가르침을 전한다. 후미 스님은 "불교의 내용을 그대로 노래하면 듣는 청중들이 어렵기에 알기 쉽게 풀이한 가사로 부른다"고 말했다. 스나오 스님 역시 "음악에 맞춰 불교를 전하면 그 내용도 기억에 쉽게 남는다"며 설법 라이브의 장점을 설명했다.

두 자매 스님의 애창곡은 '지금, 생명에 눈을 뜰 때'라는 찬불가. 스님들은 "우리 두 사람은 모두 이전의 결혼생활에서 가정폭력과 정신적인 학대를 겪은 경험이 있다. 그때 이 노래가 마음의 위안이 됐다"고 말했다. 두 스님은 "그러한 가혹한 경험을 겪었기에 더욱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울리는 말을 전하고 싶다"며 노래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겠다는 굳은 마음을 밝혔다.

진실한 마음을 담은 두 스님의 설법 라이브는 점점 입소문을 타, 최근에는 사찰의 신도가 아닌 이들도 공연을 관람하는 기분으로 사찰을 찾고 있다. 또 지난 6월 고베에서 열린 설법대회에서도 설법 라이브를 공연, 관객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박영빈 객원기자

뉴질랜드 정당, 외래종교 건축 금지 추진

기독교 오순절파 소속 당 대표 "이민자 감축해야"

뉴질랜드의 한 신생(新生) 정당이 내년 총선에서 의석을 확보, 국회 진출 시 외래 종교 시설물 건축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다. 이들이 말하는 외래 종교에는 불교 사찰과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 등이 포함된다.

11월 11일(현지시간) 뉴질랜드 헤럴드(Newzealand Herald)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 5월 창당한 비전뉴질랜드당은 내년 총선에서 국회에 진출하면 이 같은 내용의 입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정당의 한나 타마키 대표는 기독교 오순절파 소속 '데스티니 교회'의 창시자인 브라이언 타마키의 배우자다.

타마키 대표는 '그들은 우리가 아니다(They are not us)'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뉴질랜드제1당이 이민자를 충분히 줄이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우리는 그것을 이뤄낼 것"이라고 했다.

이어 타마키 대표는 "나는 우리(뉴질랜드) 사회에 다른 문화·신앙·관습을 수용할 충분한 공간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뉴질랜드인 우선주의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 사찰, 모스크 등 외래 종교 시설물이 뉴질랜드에 건축되는 것을 막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뉴질랜드 헤럴드 등 매체는 "그동안 반(反)이민 정책을 표방한 비전뉴질랜드당이 또 다시 다문화주의에 역행하는 공약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타마키는 올해 초에도 현지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순 이민자 수를 매년 2000명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비현실적인 주장이라는 논란이 일자 "순 이민자 수가 얼마인지 모른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뉴질랜드의 순 이민자 수는 4만8300명으로 입국 이민자는 14만5800명, 출국 이민자는 9만7500명이었다.

비전뉴질랜드당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관계자인 예반 골터도 지난달 이민자들을 향해 "가치 부족으로 인해 자국에서 도망친 사람들"이라고 묘사해 인종차별 혐의로 기소됐다. 박정현 객원기자


온라인 명상훈련인 '마인드핏 콥(Mindfit Cop)'을 체험하는 경찰관들. 사진출처=더 가디언

英 경찰 공무원, 불교 명상 빠지다

軍에 시범 운용, 업무 능력 향상 등 효과 입증

20만 명에 달하는 잉글랜드와 웨일즈 경찰 공무원들이 불교 명상을 접하게 된다. 웰빙(Well-being)과 삶의 만족도 및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서다. 이는 앞서 에이번·서머셋·베드퍼드셔·케임브리지셔·하트퍼드셔 등 잉글랜드의 주요 주(州)와 웨일즈 남부 지역 5개 군(軍)에서 시범 운용한 후 경찰로 확대하는 것이다.

더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해당 프로그램은 6개월간 600여 명의 군 장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용됐다. 연구자들은 "참가자들의 심리 상태를 분석한 결과 의미 있는 개선점이 나타났다"고 했다.

연구자는 더 가디언에 "이번 연구를 통해 온라인 명상 훈련이 경찰관들의 복지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온라인 명상 훈련 코스인 '마인드핏 콥(Mindfit Cop)'은 모든 경찰관들에게 무료로 제공됐다. 이는 경찰관들의 생산성과 성능에 연쇄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해당 실험을 진행한 '마인드풀니스 이니셔티브(Mindfulness Initiative)의 이사 제이미 브리스토는 "현재까지 거의 수천 명의 공무원이 해당 연구에 참여했을 것"이라며 "만약 괄목할 만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처럼 광범위한 교육에 자금을 지원하는 게 힘들었을 것이다. 경찰에 대한 새 연구가 진행된 후 곧 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불교 명상 훈련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연등설치 문제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치 – 철거 – 보관 – 유지관리까지 보련기획이 책임집니다.
부처님오신날 장엄등
사찰명 인쇄
주문 접수 중
도량장엄 전문기업
보련기획
설치에서 철거까지 책임시공
보관 및 유지관리 대행
상황에 맞는 다양한 계약조건
별도의 공사 불필요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



